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사회 인구학적 변인, 부부조망수용능력, 유아 대처반응 및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f Children

: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Children Managing Respons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장 윤 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l Student : Jang, Yun-Hee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ble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and analyze the effects of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of children. The study subjects were young children aged from four to seven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s or public day care centers in Seoul or Gyeonggi-do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First,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ies were indicated higher on boys than girls, children in a full-day program than those in a half-day program, university graduates or higher degree holders than collage graduates, single-income families than double-income families. In case of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boys showed high avoidance of offensive disposition and girls showed high emotions dissipation. Also, young children in a full-day program showed non-responses on managing responses but high responses on emotions dissipation, and children of mothers with bachelor's degree or higher education showed support and children from double-income family showed no responses in high. Moreover,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in a full-day program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in a half-day program,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were showed higher on girls than boys, half-day children than full-day ones, children from single-income family than those from double-income family. 2) Meaningful relationships were indicated between these variables;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by partly showing correlations. 3) Children in a half-day program with low in emotions dissipation, non-responses, offensive dispositional managing responses but high on Avoi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hi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주요어(Key Words) : 대인관계형성능력(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사회 인구학적 변인(social demographic variables), 부부조망 수용능력(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대처반응(managing response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주 저 자 : 장윤희 (E-mail : charmrain@naver.com)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ujukj@unitel.co.kr)

I. 서론

대인관계형성능력이란 유아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대인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때 유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삶에 필요한, 보다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관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유아는 태어나는 순간, 가장 가까운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마주하며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점차 또래관계를 경험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사회인식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에서의 자녀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있더라도 사교육의 열풍으로 가족 간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유아가 가족 내에서 대인관계형성에 기초가 되는 모델을 익히고 학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아들이 과거 보다 더 이른 시기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은 구조화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초기에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정서 및 사회화 능력 변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로, 어머니와 유아 간 정서적 상호작용은 이후 자녀의 정서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Saarni, 1989)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분담에 따른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태도 또한 관련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들(Kim, Cain, & McCubbin, 2006; Lee, 2011)이 꾸준히 보고되고는 있으나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가족은 어머니나 아버지에 국한시켜 접근하기 보다는 부부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 동안 부부관계와 유아의 정서 또는 발달 간의 관계성을 밝힌 최근 몇 년 간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부갈등이나 언쟁 등 부부간 부정적인 관계만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Han & Hwang, 2010; Jang, Kim, & Kim, 2011; Lee, 2010; Lim, Moon, & Kim, 2009), 그중 Woo와 Lee(2010)는 부부간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양육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유아와의 관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감정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심리적 통제를 증가시켜(No & Song, 2007), 부모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

키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의 우울, 불안이 증가하였으며(Min & Kim, 2007), 부부간 갈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여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Kim & Do, 2001)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적은 어머니가 설명적이고 긍정적인 언어 상호작용을 하여 또래와 협동적이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통제적이고 설명이 없을 때 유아는 또래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래에게서 거부되거나 덜 수용적이었다(Hart, Ladd, & Burleson, 1990). 최근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김혜신·김경신, 2003)하고 있는 추세이며,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지지는 가족이나 동료, 보육시설과 같은 기타 사회적 지지원 보다도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끈다는 보고가 있다(Kim, K. W., et. al., 2010; Hu, S. K., 200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종합해 볼 때,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유아를 긍정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쳐 초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유아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정서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아가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며, 유아의 사회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다(Jang & Moon, 2011b).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이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며(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나 또래와 같이 친숙한 대상이 출현했을 때, 유아는 정서중심의 지지를 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Yoo, 2002). 그러나 이러한 대처반응의 경우, 대부분이 화, 분노 등 특정 감정상태에서 유아의 대처반응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 편수 또한 매우 적어 다양한 변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유아들은 동일한 양육과 돌봄을 주는 부모나 특정 양육자에 의해 안정감 있게 길러지기 보다는 조부모, 친척, 아기 돌보미, 영아전담 보육시설 또는 사설학원 등에 의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보다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유아의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대체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으며, 두 변인 간 구조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은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9).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들은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분노나 공격성 및 불안 등의 부정적 행동은

감소되었고(Shin, 2005), 정서적 지식을 획득한 아동은 정서의 원인 및 결과를 이해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Denham et al., 1990). 또한 또래의 정서적 차이를 미묘하게 관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유아가 친근하고 안정감 있는 또래관계를 가지며(Dunsmore & Karn, 2004), 학령기 아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가족원들 사이의 정서적 결합이 높고 긍정적일수록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들(Lee & Lee, 2004; Min & Kwon, 2004)을 근거로 할 때,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인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능력이 높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변인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연구되어 온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대인관계 성향이나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낳는 변인으로서,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와의 갈등빈도가 적게 나타나며 친사회적인 성향이 높고, 또래간 놀이 상호작용이 높으며 정서성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관계를 보다 능숙하게 이끌어 가는 등 대인관계능력에서 비교적 여아는 남아보다 뛰어난 사회정서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되어 왔으나(Jang & Moon, 2010; Jang & Moon, 2011a), 이와 상이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으며(Pak, Na, Cho, 2008; Yu, 200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부조망수용능력의 차이나, 이때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사회적 복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무상보육 및 교육의 기회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유아가 기관에 맡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으므로, 기관이용시간을 비롯한 어머니 학력, 가정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차이와 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연구(Jang, Moon, 2011a)에서는 기관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은 유아들이 욕구를 지연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므로 또래놀이방해가 더 높고 친사회적 행동이 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Pak과 그의 동료들(2008)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수준은 사회적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고, 특히,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능의 유연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Kim(1995)는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어머니를 둔 유아는 고졸 이하의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무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는 교사나 또

래와 더 높은 애착이 나타났으며(Yang, 2006),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사회적 지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부부조망수용능력, 유아의 대처반응 및 정서지능은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관련된 세 변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아의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성별, 기관이용시간을 비롯한 어머니 학력, 가정의 맞벌이 유무 등을 함께 분석하여 사회정서 발달의 토대로서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알리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에 따른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 부부조망수용능력, 유아 대처반응 및 정서지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 286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일반과 반일반의 구분(1)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의 특징을 반영한

1) 어린이집의 경우, 등원시간부터 낮잠시간 전까지 이용하는 유아와 등원시간부터 낮잠시간을 포함, 오후 자유선택활동 이후 귀가하는 유아로 구분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일반적인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구분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N=286)

	Item	Frequency	%
Children's Gender	Boys	152	53.1
	Girls	134	46.9
Children's Age	3 Years Old	72	25.2
	4 Years Old	86	30.1
	5 Years Old	128	44.8
Children's Program Type	Full-day	132	46.2
	Half-day	154	53.8
Mother's Age	Thirty	222	77.6
	Forty	64	22.4
Mother's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78	27.3
	Associate	74	25.9
	Bachelor	106	37.1
	Master or Doctor	28	9.8
Family Income Type	Double-income Family	144	50.3
	Single-income Family	142	49.7

것이 아니며, 일일 보육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유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는 152명(53.1%), 여아는 134명(46.9%)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연령은 만5세가 128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만4세 86명(30.1%), 만3세 72명(2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라서는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가 132명(46.2%), 반일반을 이용하는 유아가 154명(53.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222명(77.6%), 40대 이상이 64명(22.4%)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졸 106명(37.1%), 고졸이하 78명(27.3%), 전문대졸 74명(25.9%), 대학원졸 28명(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 144명(50.3%), 비취업모 142명(49.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부조망수용능력

부부의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Long and Andrews(1990)가 개발한 부부조망수용 자기보고 척도(SDPT: The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를 한혜영(2004)이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DPT는 13문항의 자기-

보고 질문지로 특별한 관계 맥락 내에 있는 부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나는 내 배우자의 문제를 잘 이해한다.', '내 배우자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배우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잠시 동안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총 13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2) 대처반응

유아의 대처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Eisenberg et al.(1993)가 제작한 것을 Kim(199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대처반응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인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유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매일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유아가 어떻게 대처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검사방식이다. 감정발산 8문항, 무반응 9문항, 공격행동 8문항, 회피반응 8문항, 문제해결 4문항,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반응의 각 하위요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감정발산 .85, 무반응 .77, 공격행동 .84, 회피반응 .78, 문제해결 .68, 지지 .71로 나

타났다.

3) 정서지능

정서지능 검사도구는 Lee(1997)가 개발한 유아용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자기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인식표현 7문항, 인식된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자기조절 8문항,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능숙하게 인식하고 감정이입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인 타인인식 7문항, 대인관계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인 타인조절 9문항 등 총 31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인식 .86, 자기조절, .87, 타인인식 .90, 타인조절 .78로 나타났으며, 총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4) 대인관계형성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검사도구는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에 의해 개발된 Social Competence 평가 척도를 Kim(2009)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대인관계형성능력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사회적 반응성 11문항, 지시 따르기 9문항, 긍정적 상호작용 7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 기본적인 대인관계 기술 수준은 1점, 가장 능숙한 대인관계 기술 수준은 4점으로 평가되는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형성이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사회적 반응성 .87, 지시따르기 .86, 긍정적 상호작용 .70으로 나타났으며, 총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 인천지역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원아의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하여 약 180부를 회수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지역의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의 어머니 150명을 추가 조사하였다. 미회수된 설문지와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8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에 따른 유아의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부조망수용능력에서 남아를 둔 부부가 여아를 둔 부부보다 조망수용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t=2.24, p<.05$), 남아는 대처반응의 공격행동($t=3.30, p<.01$)과 회피($t=1.00, p<.001$)에서 여아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대처반응의 감정발산($t=-2.17, p<.05$)과 정서지능($t=-6.73, p<.001$), 대인관계형성능력($t=-5.00, p<.001$)에서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부조망수용능력에서 종일반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부보다 반일반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부의 조망수용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t=-2.94, p<.01$), 종일반 유아는 대처반응의 무반응($t=2.80, p<.01$)과 정서지능($t=1.95, p<.05$)에서 반일반 유아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일반 유아는 대처반응의 감정발산($t=-2.03, p<.05$)과 대인관계형성능력($t=-2.28, p<.05$)에서 종일반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부조망수용능력에서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보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조망수용능력이 높게 나타났고($t=3.74, p<.001$), 대처반응에서 지지는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를 둔 유아보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를 둔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t=-2.69, p<.01$).

Table 2. Distinction between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of Young A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Depending on Child's Gender (N=286)

		Boys (n=150)	Girls (n=134)	t
		M(SD)	M(SD)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3.64(.43)	3.52(.49)	2.24*
Managing Responses	Emotions Dissipation	2.98(.72)	3.14(.59)	-2.17*
	Non -responses	2.08(.48)	2.06(.50)	.34
	Offensive Disposition	2.33(.70)	2.09(.57)	3.30**
	Avoid	2.53(.68)	2.46(.47)	1.00***
	Problem -solving	3.24(.62)	3.30(.60)	-.81
	Support	3.33(.49)	3.27(.54)	.97
Emotional Intelligence		3.51(.44)	3.85(.40)	-6.73***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2.94(.52)	3.20(.35)	-5.0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Distinction Among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Depending on Time Children at the Center (N=286)

		Full-day (n=132)	Half-day (n=154)	t
		M(SD)	M(SD)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3.50(.48)	3.66(.43)	-2.94**
Managing Responses	Emotions Dissipation	2.97(.70)	3.13(.63)	-2.03*
	Non -responses	2.15(.45)	1.99(.51)	2.80**
	Offensive Disposition	2.18(.58)	2.24(.70)	-.80
	Avoid	2.53(.56)	2.48(.61)	.79
	Problem -solving	3.29(.63)	3.25(.59)	.54
	Support	3.31(.57)	3.29(.46)	.43
Emotional Intelligence		3.73(.49)	3.63(.42)	1.95*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2.99(.46)	3.12(.47)	-2.28*

* $p < .05$, ** $p < .01$

Table 4. Distinction among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Depending on Mother's Educational Status (N=286)

		High School Graduate or Associate (n=152)	Bachelor or Master or Doctor (n=126)	t
		M(SD)	M(SD)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3.50(.47)	3.70(.42)	-3.74***
Managing Responses	Emotions Dissipation	3.06(.68)	3.07(.66)	-.05
	Non-responses	2.08(.49)	2.02(.46)	1.01
	Offensive disposition	2.21(.68)	2.24(.61)	-.31
	Avoid	2.52(.61)	2.46(.57)	.82
	Problem-solving	3.22(.58)	3.32(.64)	-1.33
	Support	3.23(.48)	3.40(.54)	-2.69**
Emotional Intelligence		3.71(.45)	3.62(.47)	1.53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3.10(.47)	3.01(.47)	1.51

p < .01, *p < .001

Table 5. Distinction among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Depending on Existence of Double-income Family (N=286)

		Double-income Family (n=144)	Single-income family (n=142)	t
		M(SD)	M(SD)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3.52(.49)	3.65(.42)	-2.46*
Managing Responses	Emotions Dissipation	3.02(.66)	3.11(.68)	-1.07
	Non-responses	2.12(.45)	1.99(.50)	2.20*
	Offensive Disposition	2.19(.55)	2.24(.74)	-.67
	Avoid	2.50(.55)	2.49(.63)	.21
	Problem-solving	3.25(.65)	3.28(.57)	-.36
	Support	3.33(.55)	3.27(.48)	.94
Emotional Intelligence		3.68(.48)	3.67(.43)	.06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3.00(.47)	3.12(.46)	-2.26*

*p < .05

어머니의 맞벌이유무에 따른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부조망수용능력에서 맞벌이 보다 외벌이 부부의 조망 수용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t=2.46, p<.05$), 대처반응의 무반응($t=-2.20, p<.05$)은 맞벌이 부모를 둔 유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인관계형성능력($t=-2.26, p<.05$)은 외벌이 부모를 둔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의 상관관계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부부조망수용능력은 무반응($r=-.16,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문제해결($r=.24, p<.001$), 지지($r=.28,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지능은 무반응($r=-.13, p<.05$), 공격행동($r=-.29, p<.001$), 회피($r=-.18, p<.01$), 지지($r=-.13, p<.05$)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대인관계형성능력은 감정발산($r=-.20, p<.01$), 무반응

($r=-.16, p<.01$), 공격행동($r=-.45,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서지능($r=.61,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에는 부분적으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및 정서지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및 정서지능이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1.00~1.61), TOL는 0.1이상(.62~.99)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7>의 1단계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기관이용시간, 모학력, 맞벌이유무)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부조망수용능력을, 3단계에서는 대처반응을, 4단계에서는 정서지능 변인을 투입하였다.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mong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N=286)

	1	2	3	4	5	6	7	8	9
1.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1								
2. Emotions Dissipation	-.09	1							
3. Non-responses	-.16**	.10	1						
Managing Responses				1					
4. Offensive Disposition	-.04	.46***	.16**						
5. Avoid	-.10	.34***	.51***	.31***	1				
6. Problem-solving	.24***	-.17**	-.05	-.26***	-.09***	1			
7. Support	.28***	-.04	.01	-.11	.03	.54***	1		
8. Emotional Intelligence	-.02	-.05	-.13*	-.29***	-.18**	.06	-.13*	1	
9.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03	-.20**	-.16**	-.45***	-.08	.11	-.20	.61***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Influence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Managing Response,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and the Relativistic Explanation Skills (N=286)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tep1		Step2		Step3		Step4	
	B	β	B	β	B	β	B	β
Gender ^a	.82	.29***	.84	.30***	.65	.23***	.22	.08
Social Demographic Variable								
Children's Program Type ^b	.28	.10	.27	.10	.37	.13*	.55	.19***
Mother's Level of Education	-.15	-.10	-.17	-.11	-.11	-.07	-.07	-.05
Family Income Type ^c	.22	.08	.20	.07	.14	.05	.09	.03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19	.06	.09	.03	-.01	.00
Managing Responses								
Emotions Dissipation					-.22	-.11	-.30	-.14**
Non-responses					-.45	-.15*	-.35	-.12*
Offensive Disposition					-.86	-.39***	-.58	-.26***
Avoid					.41	.17**	.50	.21***
Problem-solving					.00	.00	-.10	-.04
Support					-.13	-.05	.14	.05
Emotional Intelligence							.43	.55***
F value	9.07***		7.48***		10.73***		26.24***	
R ² (adj. R ²)	.11(.10)		.12(.11)		.31(.28)		.55(.52)	
R ² change			.01		.19		.24	

* $p < .05$, ** $p < .01$, *** $p < .001$

a: dummy variable(Boys=0, Girls=1)

b: dummy variable(Full-day=0, Half-day=1)

c: dummy variable(Double-income Family=0, Single-income Family=1)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11%로, 성별($\beta=.29,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부부조망수용능력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로, 성별($\beta=.30,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대처반응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19%로, 이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23, p<.001$), 중일반유무($\beta=.13, p<.05$), 무반응($\beta=-.15, p<.05$), 공격행동($\beta=-.39, p<.001$), 회피($\beta=.17, p<.01$)였으며, 총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정서지능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24%로, 이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정발산($\beta=-.15,$

$p<.01$), 무반응($\beta=-.12, p<.05$), 공격행동($\beta=-.26, p<.001$), 회피($\beta=.17, p<.001$)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유아 대처반응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24%로, 이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일반유무($\beta=.19, p<.001$), 감정발산($\beta=-.14, p<.01$), 무반응($\beta=-.12, p<.05$), 공격행동($\beta=-.26, p<.001$), 회피($\beta=.21, p<.001$), 정서지능($\beta=.55, p<.001$)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55%로 나타났다.

즉, 반일반 유아의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행동적 대처반응이 낮으면서 회피반응이 높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첫째, 부부조망수용능력은 여아보다 남아, 반일반보다 종일반, 전문대졸보다 대학교졸 이상, 맞벌이보다 외벌이 부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대처반응은 남아의 경우 공격행동이나 회피가, 여아의 경우 감정발산이 더 높게 나타났고, 종일반의 유아의 경우 무반응이, 반일반 유아의 경우 감정발산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지지와 맞벌이 부모를 둔 유아의 무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은 남아보다는 여아가, 반일반보다는 종일반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형성능력은 남아보다는 여아가, 종일반보다는 반일반 유아가, 맞벌이 부부보다는 외벌이 부부의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Fabes and Eisenberg(1992)에 의하면, 남아는 화난 감정을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여아는 비공격적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Jang and Moon(2010)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에서도 남아보다 여아의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관계 등 친사회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여아는 자신의 감정을 잘 발산하고 정서지능이 높으며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제공하지만 남아는 친사회적 행동보다 공격행동이나 회피행동을 더 나타냄으로써 부모가 자녀문제에 대하여 상호작용하거나 양육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부부조망수용능력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일반 유아들에게 감정을 발산하는 대처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종일반 유아들에게 무반응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반일반 유아들이 갈등상황에서 울음을 통해 감정을 발산하거나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발산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종일반 유아들은 무반응으로 대처함으로써 인지적으로 반응하여 무반응 대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종일반 유아의 적극적 감정발산에 대해 종일반 초기 적응시기에 감정발산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에 의해 학습되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해석한 An과 동료들의 연구(2007)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반일반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종일반 유아와 반일반 유아간 공격성, 또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Thornberg와 동료들(1990)의 연구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종일반과 반일반을 이용하는 유아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집과 분석을 통해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유아의 기관이용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최근 24시간 보육시설, 시간연장제 보육시설, 유치원의 종일반의 수

요와 공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비해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변인으로, 이는 추후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들의 차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대처반응 중 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아의 정서지능이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Lee, 2001)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일상생활에서 친사회적 언어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유아의 사회적인 언어능력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Nam, H. J., & Seo, H. A., 200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대화하는 기술에서 상위인지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적 상호작용 및 이해력이 높아 부부간 상호작용이 함께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동을 유아가 모방하여 습득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가정의 수입형태에 따라서 외벌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보다는 함께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부간 서로 이해하는 능력이나 상호작용능력이 높는데 반해,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부모의 모델을 학습할 기회가 적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대처반응에서 무반응이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인관계형성능력에 관해서는 Kim(2009)의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맞벌이 유무가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가정에서 유아와 충분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럴만한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를 둔 유아의 경우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으로써 결국 대인관계형성능력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가능한 한 가정에서 부부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적, 행동적 모델을 보여주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아가 낯선 상황이나 분노를 경험했을 때,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위기를 마주했을 때도 지지나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를 위해서는 기관에만 의존하여 보육과 교육의 전반을 맡기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을 통한 면담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유아의 대처반응,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에는 부분적으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대처반응 중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행동은 대인관계형성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는 충동적으로 감정발산을 하는 아동이 이후, 반사회적으로 행동할 비율이 일반 아동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공격성이나 분노 폭발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ytton, 1990). Newborg와 동료들(1998)은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제시하였으며, Hwang(1997)은 대인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동이 사용하는 요인 중의 한 가지 전략으로 회피적, 수동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즉, 무반응은 유아가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지능과 대인관계형성능력 간의 정적 상관은 이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Kim, Cain, & McCubbin, 2006; Kim, 2009; Lee, 2011),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자신을 둘러싼 대인관계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넓혀가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할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인의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유아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나 동화감상 등을 계획하여 교육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와 함께 유아들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사회적 모델을 제공하도록 부모와 교사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주며 자연스러운 교육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처반응 중 회피는 대인관계형성능력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andler, Tein & West (1994)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회피하는 대처반응에 대해 심리학적인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Jang and Moon(2011b)의 연구에서는 회피를 부정적인 대처반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연구마다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해석상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Roth & Cohen, 1986). 따라서 회피와 대인관계형성능력 또는 사회적 유능감 변인 간 보다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대인관계형성능력과 관계성을 드러낼 것이라 예측해 볼 만한 부부조망수용능력과 대처반응의 문제해결이나 지지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반일반이면서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적 대처반응이

낮고 회피반응이 높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 상황에서 회피반응이 유아의 사회적인 능력과 관련되고(Eisw-berg, Fabes, & Bernzweig, et al., 1993),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차이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유아가 안정감 있는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Dunsmore & Karn, 2004; Kim, 2009). 즉, 유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 평가, 표현, 조절하는 능력이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반일반 유아에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종일반 유아가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정해진 스케줄이나 분위기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구속감이나 압력 등이 반일반보다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Jin, 2006), 스트레스가 낮은 유아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느낌에 따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Kostelnik, et al., 2002)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아가 오랜 시간동안 또래 집단이나 의도된 사회적 관계 또는 상황에 노출된다고 해서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관 생활에서 정해진 규칙, 구조화된 분위기 등으로부터 발생한 정서적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이나 돌봄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때,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부득이하게 기관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유아일지라도 교사나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유아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편안한 돌봄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의 양육적 역할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유아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최대한 덜 느끼도록 한 학급 및 교사에 대한 유아 수를 더 낮게 배정하고, 교사가 부모와 같은 돌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부부의 조망수용능력을 조사함에 있어,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응답에만 의존하였고 실제로 검사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은 누락된 채, 양적 연구에만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관찰법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녹취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적 편견이나 오차를 줄이고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리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일부를 분석한 것에 그쳤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유아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이나 또래집단 내에서의 경험 등 다른 변인을 예측하거나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해서는 감히 논의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종속연구를 통해 지켜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 종일반 유무,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유무와 부부조망수용능력, 유아 대처반응 및 정서지능이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가 타인양육이나 기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일차적인 양육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부부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해체된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An, J. Y., Han, J. W., Kim, S. S., & Lee, E. Y.(2007). The coping behavior styles of children in full-day kindergarden class and half-day kindergarden cla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9(2), 107-128.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Dunsmore, J. C., & Karn, M. A.(2004).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and maternal socialization on kindergarteners' developing emotional knowledg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5(1), 39-56.
- Eisenberg, N., & Fabes, R. A.(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Clark, MS.(Eds.), *Emotion and social behavio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pp. 119-150). Thousand Oaks, CA, US : Sage Publications, Inc, xi, 311 pp.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Bernawin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Farrington, DP., Loeber, R., & Van Kammen, WB.(1990). Long-term criminal outcomes of hyperactivity-impulsivity-attention deficit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hood. In LN Robins & M. Rutter (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 H. Y.(2004).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Han, T. S., & Hwang, H. J.(2010). The Effect of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 related variables on preschool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5), 99-119.
- Hart, C. H., Ladd, G. W., & Burlson, B. R.(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Huh, S. K.(2006).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O. K.(1997). *The perceptions of parents, family, self, and peers in school-age children : Links with problem-solving behaviors and sociometric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hw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J. Y., Kim, J. H., & Kim, Y. H.(2011).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yle on problem behaviors in young children.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2), 79-107.
- Jang, Y. H., & Moon, H. J.(2010). The effec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leadership on peer relationships.

-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2), 51-68.
- Jang, Y. H., & Moon, H. J.(2011a). The effect of children's leadership and self-regulation upon peer play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2), 73-87.
- Jang, Y. H., & Moon, H. J.(2011b).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2), 19-35.
- Jin, S. A.(2006). *A study on 5 years old children's stress behavior by the administration half-days and full-days in the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Cain, K., & McCubbin, M.(2006). Maternal paternal parenting, acculturation, and young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Kor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9(3), 112-129.
- Kim, H. J.(1995). *Mother's perception to children's coping with negative emotion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 Kim, K. S.(2003). Parental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4), 117-131.
- Kim, K. W., Doh, H. S., Kim, S. W., & Lee, S. H.(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30(5), 101-113.
- Kim, M. J., & Do, H. S.(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Kim, S. M.(2009)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variable affecting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2011). Variables affecting the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dual-income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6), 95-120.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ty, K.(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Theory to practice(4th eds.)*. N.Y. : Delmar.
- Lee, B. L.(1997). *Psychological attitude of parents of infa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L.(2011). The influence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al power-prestige in childhood on adul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6), 1-8.
- Lee, J. Y., & Lee, K. A.(2004).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 Lee, Y. M., & Min, H. Y.(2004). The effect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10.
- Lim, J. Y., Moon, D. K., & Kim, Y. H.(2009). Effects of father's job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and participation in child care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 93-118.
- Long, E. C. J., & Andrew, D. W.(1990). Perspective-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 Lytton, H.(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5), 683-697.
- McElwain, N. L., Halberstadt, A. G., & Volling, B. L.(2007). Mother-and father-reported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young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78(5), 1407-1425.
- Min, H. Y., & Kim, K. H.(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aring and 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family and non-low income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33-41.
- Nam, H. J., & Seo, H. A.(2008).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verbal control style, 13(2), 91-116.
- Newborg, J., Stock, J., Wnek, L., Guidubaldi, J., & Svinicki, J.(1988). *Battelle developmental inventory with recali-*

- brated technical data and norms.* Allen, TX : DLM-Teaching Resources.
- No, J. H., & Song, H. J.(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s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Psychotherapy, 7*(2), 75-89.
- Pak, N. J., Na, E. S., & Cho, I. S.(2008).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ocial intelligence and parents backgroun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Administration, 12*(2), 5-21.
- Rohner, R. P.(2008).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studies of intimate adult relationships, *Cross-Cultural Research, 42*(1), 5-12.
- Roth, S., & Cohen, I. 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aarni, C.(1989). Emotional intellig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s.), *Social-emotional Development*(pp. 115-182).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ndler, I. N., Tein, J. Y., & West, S. G.(1994). Coping,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children of divorce :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6), 1744-1763.
- Shin, H. S.(2006).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Thornberg, K. R., Pearl, P. Cronptonm, D. & Ispa, J. M. (1990). Develop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based on child care arrang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109-126.
- Woo, S. J., & Lee, Y.(2010).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ouples with young 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llia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7), 89-97.
- Yang, A. K.(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al-income family and young child's teacher-parents attach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4), 197-212.
- Yu, M. I.(2005).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young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Seoul, Korea.

접수 일 : 2012년 03월 15일

심사 일 : 2012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18일